

# ‘문장 의미와 언어 교육’에 대한 토론문

김윤신(인천대)

이 발표는 국어 의미론 연구에서 문장 의미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언어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어 의미론 연구가 주로 어휘 의미에 집중되어 있고 문장 의미는 문장의 형식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문법론의 입장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언어 교육, 그중에서도 모어 교육인 국어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어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맥락에 따른 의미 해석이나 국어 사용상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은 어휘가 문장으로 확장되고 그 문장이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단위와 그에 따른 의미의 관계가 무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론자는 발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어 의미론 연구와 언어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장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사소통 교육의 차원에서 문장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한다. 더 나아가 형식 의미론적 방법론이 국어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발표의 또 다른 가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이 발표는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제시된 합성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토론자의 생각도 동일하다. 그러나 발표문에 따르면 명제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합성성의 원리가 분명히 적용되는 것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나 문장의 의미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합성성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명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4.2.에서 숙어, 특수 구문, 생략 구문 등에서는 ‘맥락에 의한 추론’에 의해서 문장의 확장된 의미가 해석되고 4.3.에서는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함축 의미로 까지 문장의 의미가 확장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합성성에 근거를 둔 기본적인 문장 의미로부터 맥락이 주는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과 합성성의 관련성, 그리고 합성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과 범위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더욱 구체적인 의견을 청하고자 한다.

둘째, 이 발표에서 ‘양상’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12)의 예시와 (13)의 도식을 보면 ‘상, 태, 부정’은 명제의 의미를 결정하지만 ‘높임, 시제, 양태, 증거성, 화행’ 등은 명제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 결국 ‘양상’은 명제의 의미에 관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이는데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상’은 항상 명제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참값에는 모든 경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12b), (12c)과 같이 변경할 경우에는 명제의 의미가 바뀌지만 여기에서 양상 표현을 생략한다면 명제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은 하위 부류를 더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는 바이다.

셋째,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인 문장의 이해와 생성을 명제적 의미, 양상적 의미, 맥락에 의한 의미 등을 고려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주 9)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어 <작문> 교과에서 ‘사실 명제, 가치 명제, 당위 명제’ 정도로 명제의 종류를 나누는 것보다는 더 상세한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현재의 발표문에는 그 교육 방안의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발표자가 생각하는 문장 의미의 교육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넷째, 언어 교육은 모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언어 교육에서 문장 의미 교육이 적용되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도 궁금하다.

위의 내용이 토론자의 과문함으로 인한 부족한 질문이나 견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은 토론자와 학회 참여자의 양해를 구한다. 다만 국어 의미론 연구와 국어 교육을 비롯한 언어 교육에서는 문장 의미가 간과되어 그에 관련된 논의나 교육이 문장의 형식에 경도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이와 같은 경향은 더 나은 국어 의미론 연구와 언어 교육을 위해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